이성하 (2002) 이동동사의 후치사화에 관한 형태통사적 연구. 언어와 언어학 29: 205-225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Rhee, Seongha (2002) Morphosyntactic Analysis of Postpositions Grammaticalized from Verbs of Movement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29: 205-225 (Language Research Institut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이동동사의 후치사화에 관한 형태통사적 연구

이 성 하

## 1. 서론

한국어의 이동동사는 수평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류와 수직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류 이외에도 이동에 관련되어 있는 이동체(투사체: trajector)의 이동방식이나 이동 준거대상, 즉 지표(landmark)의 상대적인 지형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동사류를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동사류들 중 특히 마지막 유형을 간략하게 이동방식동사(이성하 1996)라 분류하고 이 유형에 속하는 (1)과 같은 동사들이 차츰 동사적 성격을 잃고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후치사류로의 변화를 겪는 이른바 문법화 현상을 통사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넘다: 지표 위로의 이동의 표시
대다: 지표로의 접근관계 표시
붙다: 지표로의 접근관계 표시
다그다: 지표로의 접근관계 표시
좇다: 지표로의 접근 및 이동방향 표시
따르다: 지표로의 이동방향 표시

이들 동사들은 차츰 동사적 성격을 잃고 후치사류로 변화 발전하는데 여기에서 발달된 후치사류로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넘다 > -너머
대다 > -에 대고
붙다 > -부터, -로부터, -에서부터
다그다 > -에다가
좇다 > -조차
따르다 > -에 따라, -을 따라, -따라

이들 후치사류는 현대 한국어에서 그 후치사적 특성의 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며 따라서 일부는 동사적 특성을 더욱 많이 보존하고 있는데 비해 일부는 후치사적 특성을 더 많이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따르다'의 경우에는 '-에 따라', '-을 따라', '-따라' 등 세 가지의 후치사류가 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후치사류 중 '-너머', '-부터', '-조차', '-에다가', '-부터' 등과 같이 형태적으로 단일어화된 경우들을 단순후치사(simplex postposition), '-에 대고', '-에 따라', '-을 따라', '-로부터', '-에서부터' 등과 같이 형태적으로 아직 단일어화되지 못한 경우를 복합후치사(complex postposition)라 명명하고자 하는데 이들 두 부류는 이후 논의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형태통사적 특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2. 의미통사적 어순관계

후치사로의 문법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의미통사적인 것이다. 한국어와 같이 여러 개의 동사들이 연쇄동사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언어에서는 동사들의 문법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동사들이 결합을 통해 연계동사구문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문법화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DeLancey (1991: 15)에서는 연계동사구문을 '문법화의 씨앗(seed of grammaticalization)'이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여러 개의 동사들이 결합하여 매우 복잡한 연계동사를 형성할 수 있는 한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연계동사구문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계동사구문에서 동사들이 결합하는 방식은 특정한 순서를 지키는데 그 순서는 대개 다음 (3)과 같다 (cf. 이성하 1996).

| (3) 순서: | 명사-(토씨) | 방식 | 방향 | 동작 | |
|---|---|---|---|---|---|
| 예: | 친구-를 | 따라 | 들어 | 오다 | > 따라들어오다 |
| | 안-으로 | 뛰어 | 들어 | 가다 | > 뛰어들어가다 |
| | 밖-으로 | 튀어 | 나(아) | 가다 | > 튀어나가다 |

이러한 순서가 가지는 의미는, 선행하는 명사에 붙은 토씨가 한국어의

특성상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동 방식을 표시하는 동사가 명사 바로 뒤에 따라 나올 수 있으므로 다른 이동동사들보다 이동방식동사들이 명사와 인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명사와 이동방식동사가 인접할 경우에 이동방식동사는 다른 후행동사들과의 관련성보다는 앞의 명사와의 관련성이 부각됨으로써 명사의 문장내 역할을 규정짓는 후치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동방식동사들은 의미통사적인 동사배열구조의 특징을 통해 후치사로의 문법화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 3. 형태적 구조와 범주적 특성

이제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후치사들이 형태적으로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동사로부터 발달한 점을 고려하여 범주적으로 동사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3.1 형태적 구조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인 후치사류는 동사로부터 문법표지로 발달되는 많은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비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어의 비종결어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문법화 과정에 가장 빈번하게 관여하는 비종결어미는 '-아/어'와 '-고'를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비종결어미는 문장이 아직 종결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그 의미가 각각 다르다. 이 비종결어미의 의미로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어'는 선행요소와 후행요소 사이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고'는 선행요소와 후행요소 사이의 단절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구현정 1987). 이러한 의미적 특성에 따라 이성하(1996)에서는 '-아/어'를 '통합적 연결사(consolidating connective)' '-고'를 '고립적 연결사(isolating connective)'라 불렀다. 이 두 가지 연결사의 의미 차이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잘 드러난다.

(4) a. 고기를 구워 먹다
b. 도중에 자고 가다

(4a)에서는 '굽는' 행위와 '먹는' 행위가 거의 동일한 사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구운 고기를 먹다'와 의미상 유사하다. 이에 비해 (4b)에서 '자는' 행위와 '가는' 행위는 단일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두 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의 경우에서는 한 번의 식사행위 내에서 '굽는' 행위와 '먹는' 행위가 혼재해 있을 수 있지만 뒤의 경우에는 두 가지 행위가 혼재할 수 없고 단절적이며 순차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후치사류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비종결어미와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었다.

(5) a. 넘 + 어 > -너머
b. 대 + 고 > -에 대고
c. 붙 + 어 > -부터, -로부터, -에서부터
d. 다그 + 아 > -에다가
e. 좇 + 아 > -조차
f. 따르 + 아 > -에 따라, -을 따라, -따라

뿐만 아니라 이들 후치사류는 선행하는 명사와의 연결장치가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음 두 가지 형태통사적 구성에서 발달한 것이다.

(6) a. 단순후치사:
구성: [명사]-이동방식동사-비종결어미
예: -부터, -조차, -따라
b. 복합후치사:
구성: [명사]-토씨 이동방식동사-비종결어미
예: -에 대고, -에다가, -에 따라, -을 따라, -로부터, -에서부터

### 3.2 범주적 특성

여기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후치사류는 모두 이동방식동사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동사적 특성과 후치사적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법화 현상은 동사라는 1차적 범주에서 후치사라는 2차적 범주로의 이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 현상의 예가 된다. 따라서 이 후치사류들이 문법범주로서 동사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동사적 자질을 잃고 완전히 후치사로 발전하였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는 경어법(honorification)이 문법화된 드문 언어중의 하나로 술어는 주어가 존경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해당 용언에 이른바 경어표지 '-시-'를 붙일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개 이러한 경어법이 위반되었을 경우 문법성(grammaticality)에 있어서도 비문법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학자간의 이견이 있으나 화용적 적합성(pragmatic acceptability)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화용적 적합성이 지켜지는 상황에서는 이 경어법의 적용이 매우 세밀하고 엄격하여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문의 경우 모든 용언에 경어법표지 '-시-'가 붙는다.

(7) a. 아버지께서 학교에 오셔서 담임선생님을 만나셨다
a'. *아버지께서 학교에 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셨다[1)]
b. 아버지께서 불고기를 잘못 드시고 배탈이 나셨다
b'. *아버지께서 불고기를 잘못 먹고 배탈이 나셨다

이와 같이 경어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에 따라 경어법은 한국어에서 문장의 주술관계를 검증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었다 (cf. 홍기선 1991). 이 경어법 표지를 통해 여기에서 논의되는 후치사류들의 용언성, 즉 동사로서의 자질 존속여부를 검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어학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은 비문법적인 문장에만 별표(*)를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화용적으로 부적절한 문장에도 별표를 사용하였다.

(8) -너머[2)]

a. 선생님께서 산너머 동네에 사신다

b. *선생님께서 산넘으시어 동네에 사신다

(9) -에 대고

a. 선생님께서 밖에 대고 호통을 치셨다

b. *선생님께서밖에 대시고 호통을 치셨다

(10) -부터, -에서부터, -로부터

a. 선생님께서 새벽 5시부터 강의하셨다

b. *선생님께서 새벽 5시부트시어 강의하셨다

c. 선생님께서 부산에서부터 줄곧 운전하셨다

d. 선생님께서 부산에서부트시어 줄곧 운전하셨다

e. 선생님께서 서울로부터 연락을 하셨다

f. 선생님께서 서울로부트시어 연락을 하셨다

(11) -에다가

a. 선생님께서 책상에다가 책을 놓으셨다

b. 선생님께서 책상에다그시어 책을 놓으셨다

(12) -조차

a. 선생님께서 나조차 안 믿으신다

b. *선생님께서 나좆으시어 안 믿으신다

---

2) 후치사 '-너머'는 동사 '넘다'에서 발달한 것으로 아직도 동사적 용법으로는 '넘어'라고 표기된다. 많은 한국어 화자들은 '넘어'와 '-너머'를 혼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어사전에서 '너머'를 명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너머'에 '-에' '-에서' '-로부터' 등과 같은 불변화사들이 부착될 수 있다는 형태론적 특징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실상 한국어에서는 불변화사들이 반드시 명사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들, 심지어는 다른 불변화사에까지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cf. stacking) 불변화사 부착이 명사범주적 지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많은 한국어 화자들이 모국어 직관에 따라 부사적으로 취급하거나 명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후치사로 취급하고 있다.

(13) -에 따라, -을 따라, -따라
a. 선생님께서 식순에 따라 한 말씀 하셨다
b. ?선생님께서 식순에 따르시어 한 말씀 하셨다
c. 선생님께서 기독교의 신앙을 따라 희생적으로 봉사하셨다
d. ?선생님께서 기독교의 신앙을 따르시어 희생적으로 봉사하셨다
e. 선생님께서 그날따라 매우 편찮으셨다
f. *선생님께서 그날따르시어 매우 편찮으셨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후치사류로 다룬 문법형태소들은 모두 경어법표지를 용인하지 않거나 '-에 따라'와 '-을 따라'의 경우에는 완전히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는 않으나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문법표지들은 아직도 '따르다'라는 동사가 은유적인 전이를 통해 근원영역과 다른 새로운 의미영역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동사로서의 사용이 용인되며 따라서 후치사로의 문법화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4. 형태통사적 결합성

문법화 현상은 연속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Heine et al. 1991, Hopper & Traugott 1993). 이와 같은 점진적 변화는 Heine et al. (1991), Heine (1994)에서 제시한 중복모형(Overlap Model) 연쇄모형(Chain Model)의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에서 중간상태에 있는 것들은 대개 이전 형태의 흔적을 가지기도 하고 변화 방향상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법소의 특징을 가지기도 하여 대개 형태적으로는 옛 모습을, 의미기능적으로는 새 문법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위에서는 문장 전체의 수준에서 해당 문법소들이 용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해당문법소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적인 요소들 사이의 형태통사적 결합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형태통사적 결합성을 조사해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토씨의 사용, 띄어쓰기, 화석화, 분리가능성 등 네 가지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 4.1 불변화사의 사용

여기에서 다루는 후치사류는 그 후치사의 일부로서 불변화사를 포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불변화사가 포함되는 경우는 이 후치사가 선행하는 명사와의 형태통사적 연결장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변화사가 포함되지 않는 후치사와 비교해볼 때 후치사 범주내의 자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후치사는 그 형태통사적 기능적 특징의 일부로 선행하는 명사에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변화사의 사용여부에 따라 이들 후치사는 후치사 범주로의 문법화 진행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변화사 사용여부에 따라 이들 후치사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4) 불변화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에 대고'
a. 그는 정부에 대고 욕을 했다
b. *그는 정부 대고 욕을 했다

(15) 불변화사가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경우: '-조차, -따라[3], -너머'
a. 그 파티에 철수조차 안 왔다
b. *그 파티에 철수(를/에...)조차 안 왔다
c. 그날따라 안개가 많이 끼었다
d. *그날{을/로...}따라 안개가 많이 끼었다
e. 그녀의 어깨너머로 기차가 오는 것이 보였다
f. *그녀의 어깨{를/로...}너머로 기차가 오는 것이 보였다

(16) 불변화사의 사용이 불규칙한 경우: '-부터, -에서부터, -로부터, -에다가, -을 따라, -에 따라'
a. 부산부터 서울까지 1000리길이다
a'.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1000리길이다
a".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1000리길이다
a"'. 부산으로부터 서울까지 1000리길이다

3) '따르다'로부터 발달된 후치사류는 '-따라', '-을 따라', '-에 따라' 등이 있는데 뒤의 '-을 따라', '-에 따라'가 간혹 불변화사의 생략을 허용할 경우 형태상으로는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앞의 '-따라'는 부정적 반기대표지(negative counter-expectation marker)이며 뒤의 '-을 따라', '-에 따라'는 준거의 기준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b. 서랍에다가 잘 넣어두어라
b′. 여기다가 잘 넣어두어라[4)]
c. 식순을 따라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c′. 법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
d. 기독교 정신에 따라 잘 교육하겠습니다
d′. 순교자 정신 따라 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위의 분류에 따르면 문법화의 진행정도는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7) 불변화사 사용기준에 따른 문법화의 진행정도

| 문법화의 진행정도 | 약 → | | 강 |
|---|---|---|---|
| 후치사 | -에 대고 | -부터, -에서부터, -로부터, -에다가, -을 따라, -에 따라 | -조차, -따라, -너머 |

## 4.2 띄어쓰기

후치사의 형태통사적 결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음 기준은 띄어쓰기이다. 한국어는 아시아권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그 문자표기에 있어서 띄어쓰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어에 있어 문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착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에서 이 띄어쓰기라는 어문규정은 문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4) '-에다가'의 경우 불변화사의 생략은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여기, 저기, 거기' 등과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는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생략이 어렵다. 다만 선행명사가 개음절로 끝나는 경우 화자에 따라 불변화사 '-에'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화자에 따라 용인성에 차이가 있다.
a. 지하철 공사다가 시 예산을 다 써버린다
b. 그 사람은 컴퓨터다가 돈을 퍼붓는다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사용자들이 병치된 여러 문법형태들을 몇 개의 단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 문법형태들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띄어쓰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성하 1996, 1998, 김미영 1996). 예를 들어 1988년에 고시된 현행 한국어 어문규정에서는 보조동사들을 본동사로부터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사용자들이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붙여쓰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반드시 띄어 쓰도록 규정했던 이전의 어문규정을 수정한 것이다.[5] 문법형태를 문법범주별 특징으로 구별할 때 동사는 선행 명사(+후치사)와 분명하게 띄어 쓰도록 되어 있는 반면, 후치사는 선행 명사에 붙여 쓰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는 그 후치사가 언어사용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동사적으로 또는 후치사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또한 후치사를 단일 문법형태소라고 간주할 때 이 형태소의 내부적 결집도가 얼마나 조밀한 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내부적 결집도를 통해 그 해당 형태소가 얼마나 단일어화(univerbation)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Lehmann 1982, 이성하 1998). 이 띄어쓰기의 기준에 따라 후치사류들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 반드시 띄어 쓰는 경우: '-에 대고, -에 따라, -을 따라'
a. 정부 정책에 대고 욕을 했다
a′. *정부 정책에대고 욕을 했다
b. 각 사람은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b′. *각 사람은 적성에따라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c. 모든 학생은 학칙을 따라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c′. *모든 학생은 학칙을따라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19) 반드시 붙여 쓰는 경우: '-부터, -에서부터, -로부터, -따라, -조차, -에다가'
a. 오늘부터 열심히 일하자
a′. *오늘 부터 열심히 일하자
b. 부산에서부터 걸어 왔다[6]

5) 이와 같은 현대 한국어의 어문규정과는 달리, 1987년에 고시된 북한의 '조선말규범집'에서는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은정, 1992).

b′. *부산 에서부터 걸어 왔다
c.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왔다
c′. *고향 으로부터 소식이 왔다
d. 오늘따라 교통이 혼잡하다
d′. *오늘 따라 교통이 혼잡하다
e. 월급조차 못 받고 퇴직을 했다
e′. *월급 조차 못 받고 퇴직을 했다
f. 본봉에다가 수당까지 받았다
f′. *본봉 에다가 수당까지 받았다

(20) 기타 경우: '-너머'

'-너머'의 경우는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경우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어 사전들이 '너머'를 명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선행하는 문법형태가 명사일 경우 이 둘 사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너머'의 범주적 지위는 한국어 화자들의 직관에 있어서 유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전문 코퍼스도 이 형태를 여러 가지 품사로 태깅하고 있다. 예를 들어 KAIST KORTERM에서는 '너머'를 명사, 보조사, 접속부사, 일반부사 등으로 태깅(tagging)하고 있다.[7] 이 코퍼스에 나타난 띄어쓰기를 살펴보면 전체 462회의 용례 중 30회는 붙여쓰기를, 432회는 띄어쓰기를 하였다.[8] 이 코퍼스의 자료들이 주로 신문 등 문어자료인 것을 고

6) 여기에서 (b)와 (c)의 경우에는 '-에서부터'와 '-로부터'가 이른바 불변화사 중첩(particle stacking)의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띄어쓰기는 각 후치사의 형태통사적 결합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기보다는 각각 '-에서'와 '-로'가 선행 명사와의 결합성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7) 그러나 코퍼스의 실제 462 개의 용례들이 이러한 품사적 지위를 분명하게 변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이 '너머'의 품사적 지위는 유동적으로 보아야 한다.

8)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글 문서작업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너머'를 붙여 쓸 경우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맞춤법 도구가 실행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해 놓지 않은 경우 '너머'를 붙여 쓰는 일은 매우 드물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현빈도상 작은 숫자라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크다 할 수 있다.

려해 볼 때 실제 한국어 사용자들이 이들을 붙여 쓰는 빈도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띄어쓰기에 따라 후치사들의 문법화 진행정도를 구별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1)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문법화의 진행정도

| 문법화의 진행정도 | 약 ⟶ | | 강 |
|---|---|---|---|
| 후치사 | -에 대고,<br>-에 따라,<br>-을 따라 | -너머 | -부터, -따라,<br>-조차, -에다가 |

## 4.3 화석화

후치사의 형태통사적 결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음 기준은 이들 후치사의 화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문법 형태소가 얼마나 화석화되었는지는 형태적으로 복잡한 구성일 경우, 즉 하나 이상의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소를 이루고 있는 경우 이들 구성 형태소 각각이 얼마나 형태론적 투명성(morphological transparency)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서 알아낼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후치사류는 형태적으로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구성소의 형태론적 투명성을 살펴볼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위에서 이미 논의한 경어법에 따라 이들 형태들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것도 여기의 형태론적 투명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후치사의 구성소들 중에서 특히 동사적 어원으로부터 발달한 부분이 아직도 형태론적으로 동사로 인식될 경우, 즉 형태론적으로 투명하다고 생각될 경우, 경어법에 따른 어형변화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이들 후치사류들 중에서 특정한 불변화사가 통사적으로 변이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변이형이 허용되는지

를 시험해보는 일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목표점을 나타내는 방향격 표지 '-에'는 다음과 같은 변이형을 갖고 있다.

(22) 방향격 '-에'의 형태론적 변이형
명사 [-human] + 에
명사 [+human] + 에게/한테
명사 [+human, +honorific] + 께

여기에서 논의 중인 후치사류들 중에서 '-에 대고, -에다가, -에 따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론적 변이형의 사용여부를 통해 통사론적 투명성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 각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에 대고
a. 그 사람이 밖에 대고 소리쳤다
b. 그 사람이 나한테 대고 욕을 했다
c. 그 사람이 나에게 대고 욕을 했다
d. 그 사람이 우리 아버님께 대고 욕을 했다

(24) -에다가
a. 그 사람이 책에다가 낙서를 했다
b. 그 사람이 나한테다가 욕을 했다
c. 그 사람이 나에게다가 손해를 입혔다
d. *그 사람이 우리 아버님께다가 욕을 했다

(25) -에 따라
a. 그 사람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b. *그 사람이 법관한테 따라 벌을 받았다
c. *그 사람이 법관에게 따라 벌을 받았다
d. *그 학생들은 선생님께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형태론적 투명성에 따른 문법화 정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6) 형태론적 투명성 기준에 따른 문법화 정도

| 문법화의 진행정도 | 약 ⟶ 강 | | |
|---|---|---|---|
| 후치사 | -에 대고 | -에다가 | -에 따라 |

## 4.4 분리가능성

후치사의 형태통사적 결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음 기준은 분리가능성이다. 이 분리 가능성은 각 후치사 중에서 복합 후치사들의 경우 불변화사 다음에 부사어를 삽입하여 그 용인성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경우와, 초점 및 강조표지를 불변화사의 앞 뒤에 삽입하여 그 용인성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경우가 있다.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치사가 단일어화 과정을 덜 겪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4.4.1 부사삽입가능성

우선 복합 후치사들의 경우 후치사 내의 불변화사 다음에 부사어를 삽입하여 용인성 정도를 시험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부사어의 삽입을 용인하는 것은 그 후치사가 내적 결속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문법화의 진행정도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27) -에 대고
a. 철수가 밖에 대고 고함을 쳤다
b. ??철수가 밖에 바로 대고 고함을 쳤다

(28) -로부터, -에서부터
a. 그가 서울로부터 왔다
a′. *그가 서울로 즉시 부터 왔다
b. 그가 멀리서부터 왔다
b′. *그가 멀리서 바로 부터 왔다

(29) -에다가
a. 그가 책상에다가 돈을 올려 놓았다
b. *그가 책상에 바짝 다가 돈을 올려 놓았다

(30) -에 따라, -을 따라
a. 그가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a′. *그가 법에 바로 따라 심판을 받았다
b. 그는 법규를 따라 군에 입대했다
b′. */?그는 법규를 바로 따라 군에 입대했다
c. 그는 도로를 따라 1시간 동안 달렸다
c′. (?)그는 도로를 곧장 따라 1시간 동안 달렸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복합 후치사류는 불변화사 뒤에 부사어의 삽입을 대개 허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에 따라, -을 따라'의 경우에는 부사어의 삽입을 용인하는 정도가 다른 경우보다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들 후치사류의 핵심형태소라 할 수 있는 '따라'가 '따르다' 동사의 의미를 보존하고 있어서 위의 예들의 경우 '따르다'가 은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합 후치사류들이 다른 문장요소의 삽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들 대부분이 이미 형태통사론적으로 단일한 단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2 초점 및 강조표지의 삽입가능성

초점 또는 강조표지의 삽입 가능성은 문장 구성요소들 간의 결속력 정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Matsumoto 1998). 한국어의 경우에도 초점을 나타내는 표지인 '-만'과 강조를 나타내는 '-도'가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논의 중인 후치사류들이 사용되는 문장에서 초점 및 강조표지의 삽입 가능성을 검사하기로 한다. 우선 후치사들이 접속되는 선행 명사에 이들 표지가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복합 후치사들의 경우 후치사 내 불변화사에 불변화사 중첩과 같이 접속이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각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명사 ← (불변화사) 이동방식동사-비종결표지

'-만, -도'

(32) a. 어깨너머 배웠다, *어깨만 너머 배웠다, *어깨도 너머 배웠다
b. 밖에 대고 소리쳤다, *밖만에 대고 소리쳤다, *밖도에 대고 소리쳤다
c. 여기부터 시작하자, *여기만부터 시작하자, *여기도부터 시작하자
d. 서울로부터 왔다, *서울만으로부터 왔다, *서울도로부터 왔다
e. 서울에서부터 왔다, *서울만에서부터 왔다, *서울도에서부터 왔다
f. 밖에다가 버렸다, *밖만에다가 버렸다, *밖도에다가 버렸다
g. 밥조차 안 먹는다, *밥만조차 안 먹는다, *밥도조차 안 먹는다
h. 그날따라 비가 왔다, *그날만따라 비가 왔다, *그날도따라 비가 왔다
i. 법규에 따라 처리했다, */?법규만에 따라 처리했다, *법규도에 따라 처리했다[9]
j. 길을 따라 달렸다, 길만을 따라 달렸다, *길도를 따라 달렸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후치사들은 초점 또는 강조 표지의 삽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행 명사와 이들 후치사들 간의 결속력이 큰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복합 후치사들의 경우 후치사 내 불변화사에 불변화사 중첩과 같이 접속이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각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명사 - 불변화사-이동방식동사-비종결표지

'-만, -도'

(34) a. 나한테 대고 화를 냈다, 나한테만 대고 화를 냈다, 나한테도 대고 화를 냈다
b.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원칙에만 따라 처리했다, 원칙에도 따라

9) '-에 따라'와 '-을 따라'는 앞의 불변화사를 생략하면 '법규만 따라 처리했다, 법규도 따라 처리했다, 길만 따라 달렸다, 길도 따라 달렸다' 등과 같이 초점 및 강조 표지의 삽입을 허용한다.

처리했다

c. 길을 따라 달렸다, *길을만 따라 달렸다, *길을도 따라 달렸다[1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합 후치사의 경우에는 단순 후치사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용인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복합 후치사가 단순 후치사보다 형태통사적으로도 복잡하고 선행 명사와의 결속성도 낮으며 후치사 내 세부요소들 간의 내부 결속력도 적은 것임을 보여준다.

## 4.5 음운형태적 소실

후치사의 형태통사적 결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음 기준은 형태적 소실이다. 문법화 현상은 흔히 언어의 모든 층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일반화되고, 형태적으로는 더 간단하여지며, 음운적으로도 소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다층위적 변화는 대개는 평행적으로 나타난다 (평행축소가설; Parellel Reduction Hypothesis; Bybee et al. 1994).

여기에서는 그 초점을 통사적 변화 즉 형태면의 변화에만 맞추고 있으므로 의미적 측면의 변화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형태통사적으로는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치사류들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이 이미 동사로서의 범주적 지위를 상실하여 동사와는 다양한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살펴볼 것은 음운형태적인 소실현상이다. 여기에서 다룬 후치사들의 음운형태적 변화와 변이형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5) a. 넘어 > -너머
b. -에 대고 > -에 대고
c. -을 브터 > -을 부터 > -부터

10) '-을 따라'의 경우 '-을'을 생략하면 '길만 따라 달렸다, 길도 따라 달렸다'와 같이 초점 및 강조표지의 삽입을 허용한다. 이처럼 '-을'이 생략된 경우에는 이전 (31)-(32)에서 불변화사가 생략된 경우와 형태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된다 (cf. 각주 9).

d. -에 브터 > -에 부터 > -부터
e. -에 다가 > -에다가 > -에다/-다가 > -다[11]
f. 좇아 > -조차
g. -에 따라 > -따라
h. -을 따라 > -따라

위에서 보면 가장 많은 음운형태적 소실을 겪은 것은 '-에다가'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원래 어원적 구성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 후치사류가 어원어로부터 출발한 이후 오랜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음운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법화의 소실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이동방식을 표현하는 6개의 동사들로부터 문법화되어 현대한국어에서 후치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10개의 문법형태들에 대하여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후치사류는 공통적으로 비종결어미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며 그 음운형태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동사로부터 발달하였으나 경어법을 통해 조사해 볼 때 이미 동사적 성격은 거의 모두 잃어버린 상태이며 따라서 범주적 지위가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각각은 불변화사의 동반여부, 띄어쓰기상의 결속성, 형태통사적 투명성, 다른 문법형태의 삽입에 대한 용인성 정도, 음운형태상의 소실정도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모두 다양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자질들은 곧 이들의 내부적

11) '다그다/닥다' 동사는 고어의 경우 여기에서처럼 '-에다가' 이외에 '-을다가'의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 이때의 '다가'는 목적격표지에 붙어서 주로 그 목적어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성하 1996). 이것은 후치사류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용법이 현대어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다그다/닥다' 동사로부터 발전되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것은 주로 연속동사구문에서 상황전환표지(transferentive)로 사용되는 것이다.

결속력과 통합관계적 결속성(syntagmatic cohesion)이 다른 것임을 나타내며 이것은 곧 이들이 겪은 문법화 정도가 모두 다양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구현정. 1987. "씨끝 {-아, -게, -지, -고}의 쓰임과 의미" *건국 어문학* 11-12. 167-188.

김미영 1996. *국어 용언의 접어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성하 1996. (Rhee, Seongha☜)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이은정 1992. *남북한 어문규범 어떻게 다른가*. 서울: 국어문화사.

홍기선 1991. (Hong, Ki Sun☜)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Revere D. Perkins.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eLancey, Scott. 1991. "The origins of verb serialization in modern Tibetan", *Studies in Language*. 15.1: 1-23.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ine, Bernd. 1994.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Handout for 1992 Stanford/Berkeley grammaticalization workshop.

Hong, Ki Sun. 1991. *Argument Selection and Case Marking in Korean*. Stanfo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Hopper, Paul J. & Elizabeth Closs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hmann, Christian. 1982.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 A Programmatic Sketch.* vol. 1. Arbeiten des Kölner Universalien-Projekts (AKUP) 48. Cologne: Universität zu Köln. Institut für Sprachwissenschaft.

Matsumoto, Yo. 1998. "Semantic change in the grammaticalization of verbs into postpositions in Japanese", in T. Ohori (ed.) *Studies in Japanese Grammaticalization: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Tokyo: Kurosio Publishers. 25-60.

Rhee, Seongha. 1996.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The Development in Korean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D. dissertation. 서울: 한국문화사.

《Abstract》

# Morphosyntactic Analysis of Postpositions Grammaticalized from Verbs of Movement in Korean

Seongha Rhee

This paper investigated grammaticalization phenomena displayed by six movement verbs of manner that grammaticalized into 10 postposition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ir morphosyntactic characteristics. These postpositions include non-finite markers in their formal construct and they have morpho-phonological complexity. They were derived from verbs but from a verbhood test by using the honorification marking, they show departure from their verbal status and development into postpositions, which indicates decategorialization, a process invariably associated with grammaticalization.

In addition to the inter-categorial differences (e.g. from those of verbs), these forms show different intra-categorial differences along such criteria as accompaniment of particles, orthographic spacing, morphosyntactic transparency, tolerance of adverbial/particle insertion, and phonological loss. All these indicate variable degrees of syntagmatic cohesion, a fact that lends support to the thesis that grammar is inherently fluid and is constantly emerging.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E-mail : srhee@hufs.ac.kr